

벤케이의 거울 우물

무사시보 벤케이(1155~1189)는 승병으로서 젊은 시절에 엔교지 절에서 수행했습니다. 초인적인 힘과 충성심으로 유명한 벤케이는 많은 전설과 무대 공연 외에도 현대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도 영웅적인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벤케이는 종종 용기와 충성의 전형으로서 표현되지만, 또한 성질이 급하고 폭력적인 성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남의 비위를 그다지 맞추지 않는 벤케이의 성격은 몇 가지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그중 하나인 엔교지 절을 무대로 한 이야기는 이 거울 우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시나노보 가이엔이라는 젊은 승려가 벤케이가 자고 있는 동안 먹으로 얼굴에 장난을 쳤습니다. 벤케이가 눈을 떴을 때 젊은 승려들이 자신을 비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벤케이는 이 우물로 달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이엔이 벤케이의 얼굴은 낡은 나막신 바닥 같다고 한 말에 격노한 벤케이는 사원 건물 대부분을 마구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역사적 증거는 없습니다.